□ 대흥동 공정여행 세부일정

1일차 * 대흥동 내 이동은 도보로 진행합니다.	
10:00 - 11:00	**[오리엔테이션] 원도심에서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상상, 공감만세** - 도시의 활력을 신도심에 빼앗긴 동네 대흥동. 시간이 멈춰버린 근대 공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화 예술이 꽃 피우고,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심 좋은 도심 속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대전 대흥동은 어떤 곳일까요? 지도를 보며 오늘 나의 여행에 대해 알아보고, 상상해 봅니다.
11:00 - 12:00	**[근대공간의 상상공작소 ①-(구)충남도청] 근대 대전의 과거와 현재가 한 눈에** -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주목받는 (구)충남도청은 1932년 지어진 일제강점기 대표적 관청입니다. - 일제가 만든 도시 대전과 그 복잡한 현장에서 피어난 대전의 근·현대화 현장을 조명합니다. -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주민, 지역사회, 지자체, 문화예술가의 노력을 만납니다.
12:00 - 12:30	**[근대공간의 상상공작소 ②-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예술과 역사, 추억이 담긴 원도심 산책** - 오래된 거리에 칠해진 문화예술의 상상력. 근대와 현대가 만나며 새로운 상상력을 빚어내는 그 곳, 대전 원도심을 거닐어봅니다.
12:30 - 13:30	**[점심식사 - 사회적기업 <아임아시아>] 이주여성의 꿈을 만나다** - 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과 (주)러브아시아가 국제결혼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아임아시아, 10여 명의 국제결혼여성들이 다문화레스토랑에서 각국의 음식을 만들면서 일하는 모델은 전국 각지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13:30 - 14:30	**[근대공간의 상상공작소 ③-파킹갤러리] 허름한 모텔 주차장의 변화** - 꿈을 그려주는 화가, 문화공간 주차 박석신 화가와 진행하는 <내 이름은 꽃이다> 프로젝트를 체험합니다.
14:30 - 15:30	**[근대공간의 상상공작소 ④-월간토마토] 대전문화예술잡지를 만드는 이유** - 왜 지역에서 문화 잡지를 만들까요? 잡지부터 장르를 넘나드는 문화기획까지. <공간, 사람, 기록>을 모토로 활동하는 대전충청 유일의 문화예술잡지 월간토마토를 만납니다.
15:30 - 16:00	**[공정여행 졸업식] 당신의 공정여행 어떠셨나요?** - 여행을 마치면서 원도심과 나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 공정여행 졸업식을 통해 어떤 마무리와 맺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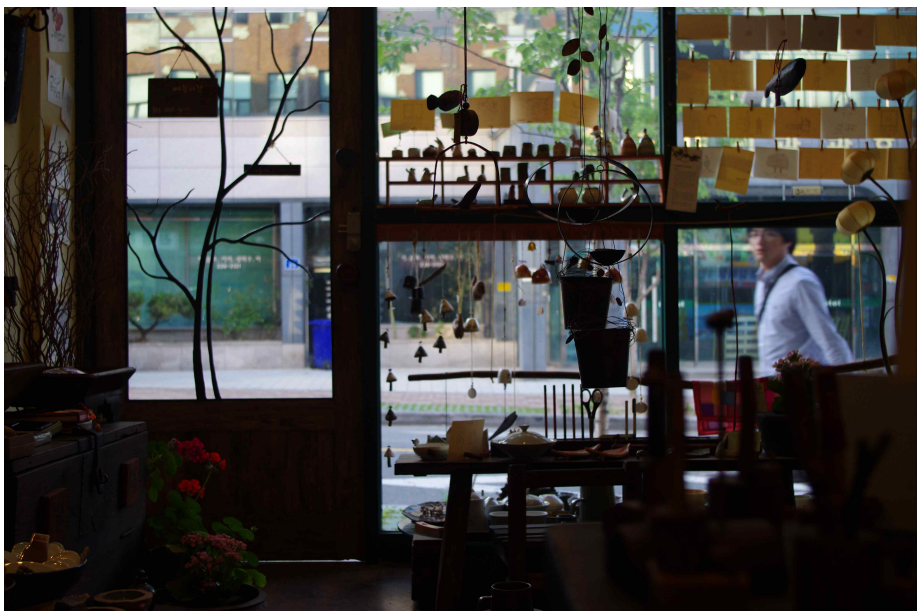
□ 대흥동 공정여행 읽을거리

<읽을거리1. 근대사 발자취 느끼고 아기자기한 갤러리 문화 만끽하고>

누군가가 '대흥동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면 대부분 "뭐 볼게 있다고"라고 먼저 대답할 것이다. 우리에게 대흥동은 원도심일 뿐 여행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행을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의 떠남이라고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대흥동이라는 그 좁은 공간만으로도 하루짜리 알찬 여행이 된다. (주)공감만세는 국내 공정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대 공간의 상상공작소 대흥동 공정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주)공감만세 조수희 팀장은 "대흥동을 여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흥동이 좋아서 이 동네를 알리고 싶어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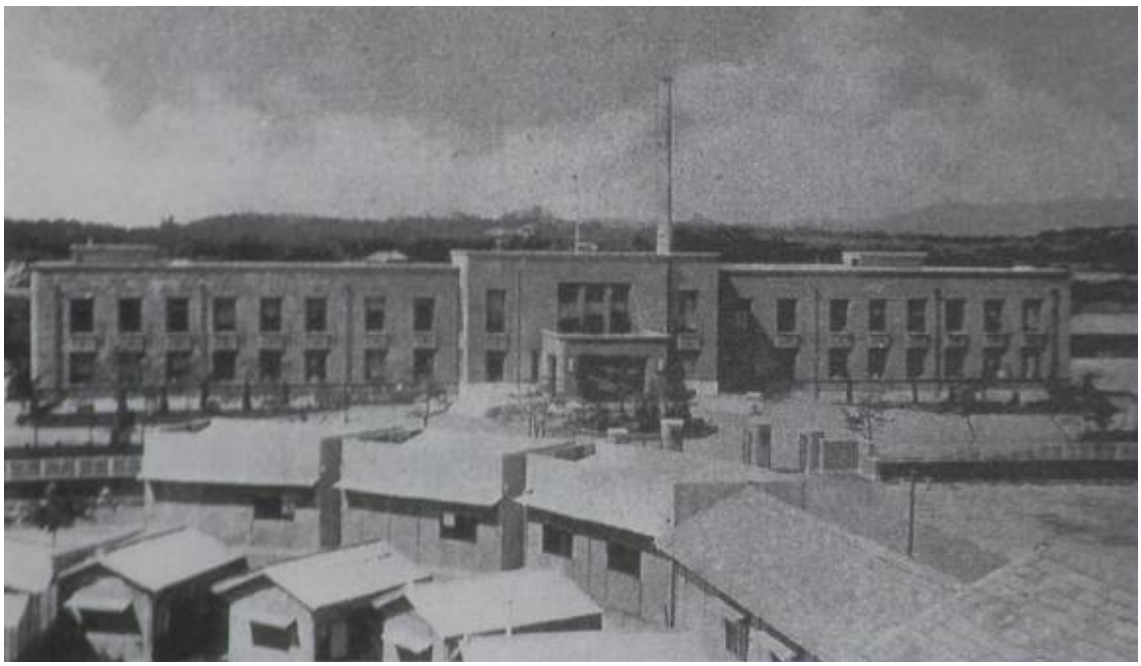
대흥동은 도시의 활력을 둔산 등 신도심에 빼앗긴 스러져가는 원도심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화예술이 꽃 피우고,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심 좋은 도심 속 시골마을이다. 하루짜리 대흥동 공정여행을 떠나보자. 우선 대흥동은 근대문화유산의 산실이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에 세워진 충남도청과 1958년에 지어진 대전창작센터는 시간이 멈춰버린 근대 공간이다. 배가 어느 정도 출출해질 때가 되면 20년째 대흥동 골목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원칼국수'에 들러 주인할머니의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듣는다. '산호여인숙'이라고 들어봤나. 여인숙 간판이 내걸린 이 곳이 대흥동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북카페 '이데'에서 대흥동 청년들이 만든 대흥동만의 문화소식지 '토마토'를 읽으며 공정무역 코코아 한 잔을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대흥동에도 제주도처럼 '올레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원도심 올레길은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앙증맞은 카페와 가게 등 상상공작소를 찾는 쏠쏠한 재미가 있다. 문의 ☎ 042-335-3600 한경수 기자 <출처 : 대전일보 2012-11-30>



<읽을거리2. 충남도청 80년을 본다 / 대전청사 건축과 도지사 공관>

아치형 현관·건물 장식 등 빼어나 … 근대문화유산 등록돼

전형적인 관공서 스타일 E자형 설계



충남도청사가 태어난 것은 1931년 6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대전군청 서쪽에 있는 땅이 도청 부지로 선정됐는데, 대전역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이다. 김갑순 소유의 가수가마치(春日町) 산초메(三丁目) 감사골 보리밭 6000평과 대전군이 제공한 4000평 등 모두 1만평이었다. 6월 15일 신축공사 기공식이 있었었는데, 건물은 연와조(煉瓦造) 지상 2층에 지하 1층의 1개동이며 지하 42평, 1층 718평, 2층 690평에 연건평 1451평의 규모로 설계됐다. 정면 55칸, 측면 33칸의 E자 형으로 계획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당시 관공서의 전형적인 모형이 E자 형이거나 뫼산(山)자 형이었다. 지붕을 철근 콘크리트 평지붕 마감으로 했는데 아마도 증축을 내다본 설계로 보여진다.

설계는 조선총독부 영선계(營繕係)에서 했다. 이와스키 센지(岩槻善之) 건축기사를 중심으로 설계가 이뤄졌고, 현장은 총독부 관방 회계과의 후쿠이(福井常次郎)가 담당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설계도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철수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 갔다고 전해진다. 김수진 전 충남부지사는 "설계도가 없어 1960년에 3층으로 증축할 때, 건물이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지붕을 양철로 씌웠다"고 말한다. 1930년대 유행하던 스크래치 타일

토목 건축을 기공할 때 지신(地神)에 공사의 안전을 비는 청사의 지진제(地鎭祭)가 6월 18일 열렸다. 공사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타 도청이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었던 점으로 미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를 썼다. 당시 건축은 토건업자인 스즈키 겐지로(須須木權次郎)의 스즈키구미(須須木組) 회사가 맡았는

데, 16만7400원으로 응찰했다. 예정 공사비가 3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점으로 미뤄 공기를 앞당겨 공사비를 줄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도청의 구조는 중앙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처마 난간대에 수평돌림대 장식이 있고 외관은 이 때 유행한 스크래치 타일로 마감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양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의 내부 계단 위에도 아치형으로 장식이 돼 있다.
목원대 건축학과 김정동 교수는 "외장의 스크래치 타일은 속칭 '재봉선 타일'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타일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 1920년대 초 도쿄의 데이고쿠(帝國) 호텔에 쓰인 후 유행한 것으로 갈색의 표면에 거친 질감의 줄무늬로 독특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고 타일은 벽돌과 같은 크기로 각각 나온 귀퉁이는 둥글게 했다"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건물 내외부에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배치해 미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치형 현관의 벽면들을 요철모양으로 파내어 장식적 요소를 가미했고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과 기단의 모서리는 곡선 처리하여 유연성을 살렸다고 덧붙였다. 내부에는 천장과 바닥에 6종의 장식과 모자이크가 12개소나 배치되어 있다.

공사기간 14개월 완벽한 건물로 탄생

향토사학자 김영한씨는 "비록 공기는 짧았지만 도청건물을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 비슷한 시기에 지은 평안남 도청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훨씬 나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1939년 말 평양에 지어진 평남도청이 충남도청과 외관이 유사하게 지어졌는데, 형태와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한 것이 비슷하다.

도청 건물의 외관에는 독특한 입체문양이 있어 눈 길을 끈다. 처음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상징하는 문양이라는 시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가 뜯겨져 나가기도 했다. 충남도청 청사관리계 박경구 계장은

"조선 총독부를 상징하는 오동나무 문양이 아니냐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학자들에 의해 1930년대 일본이 서양건축양식을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것으로 당시 동서양을 망라해 유행하던 문양일 뿐 특별한 상징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건물 안 천장과 바닥에도 비슷한 문양이 모자이크돼 있다. 이 후 도청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의 피해를 입지 않아 그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1960년 3층으로 증축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도청의 건물 말고도 대전시 중구 대흥동 326-67소재 도지사 공관도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다. 지난 2002년 대전시문화재자료 제49호로 지정되었는데, 2002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문화재자료 제49호로 지정되었다. 1932년 충남도청의 준공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당시 외지에서 부임해온 도지사가 거처하던 공관으로 역시 8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연건평 382㎡이며 2층으로 되어 있고 외장은 적벽돌 치장 쌓기를 했다. 내부는 타일로 장식했는데, 거실과 방 등 주요 공간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 공간이 기능에 따라 배치되어 들쭉날쭉하다. 창은 남쪽으로는 넓게 내고 거실과 계단, 측면 벽 등 곳곳에 장식창을 내어 외부의 빛을 실내로 끌어들인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한옥의 장점을 도입했으며 거실, 식당, 방 등의 공간배치는 동선의 흐름을 중시하는 서양식을 따르고 있다. 전체적인 건물양식은 공업적 생산 방식을 미술과 결합시킨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한 아르 데코풍이다.

공관 정문 앞쪽으로 충청남도의 국장급들이 거주하는 국장 관사가 여러 동 도열해 있어 관사촌으로 불리고 있다. 1932년 당시에는 도지사 공관 양 옆으로 경무부장, 내무부장, 산업부장 등이 거주했다.

도지사 공관도 고전적 건축미 살려

도청 바로 뒤에는 경찰의 계장급 관사가 있었고 충혼탑 아래쪽으로 도청의 계장급 관사가 있었다. 법원 주변에는 법원과 검찰의 간부들의 관사가, 대전역 주변에는 철도국 직원들의 관사가, 인동에는 헌병대 관사가 있었다고 한다. 김수진 전 충남도부지사는 "관사라는 것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부들의 집을 마련해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신흥도시인 대전에는 유난히 관사가 많았고 관사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제 12월이 지나면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한다. 그와 동시에 충남도청사와 도지사공관은 대전시에 남겨진다. 이제 남겨진 청사건물과 공관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 충남넷 - 충남도 우희창 미디어센터장>

<읽을거리3. 대전 문화 중심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전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대전의 문화 중심지'라고 불릴 정도로 낭만과 아날로그 감성이 넘치는 곳이다. 70~80년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멋진 벽화와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거닐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흥동의 매력에 푹 빠진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둘러봤다.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일대는 과거 대전의 중심지였지만 점점 상권이 쇠락해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발길도 뚝 끊겨 버렸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던 예술가들은 대흥동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연극배우, 화가, 거리의 가수 등 많은 예술가들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대흥동을 대전의 문화중심지로 만들었다.

대흥동 우리들 공원을 중심으로 소극장들이 분포돼 있어 많은 극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다섯 번째 개최되고 있는 '대전 국제소극장 연극축제'는 지루함을 느끼는 대전 지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시했다. 현재 몇몇 연극들은 인기가 높아 매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소극장뿐만 아니라 갤러리들도 많이 모여 문화거리를 이뤘다. 많은 갤러리들이 독창적인 기획전을 개최하며 대흥동 화랑의 명맥을 이어왔다.

문화예술의 거리 랜드마크는 산호다방 건물에 그려져 있는 티셔츠 벽화다. 대흥동엔 멋지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해 있지만 낡은 산호다방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한 아지트로 남아있다. 문을 연지 50년 정도 됐다고 하니 대흥동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대흥동 거리는 그냥 걸어도 재미있는 곳이다. 낡은 건물과 거리엔 멋진 그림들과 조형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초창기 이곳에 모인 예술가들이 거리를 닦고 색칠해 그들이 만들 곳이나 다름없다. 저녁이나 주말엔 거리에서 공연도 한다고 하니 대전에 살면서도 이런 곳을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출처 : 대전일보 2014-10-30>

<읽을거리4. 월간 토마토, 대흥동 시대를 열다>

매월 88페이지 남짓한 잡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했던 유료구독자 증가치는 초반 반짝한 이후 정체였다. 구성원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매월 잡지 제작 고정비를 감당하는 것도 만만찮았다. 그렇게 8개월 가량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북 카페를 취재했다. 소설가 김운하 씨가 오픈한 가게였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에게 건물 2층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워둔 지 오래여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만나야 할 인연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토마토 제작비 확보도 수월치 않은 상황에서 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는다는 게 언감생심이었다. 그래도 욕심났다.

▲ 월간 토마토 대흥동 사무실 전경. ⓒ이용원

북 카페 '이데' 김운하 사장도 적극 유치전에 돌입했다. 북 카페와 잡지사, 잘 어울리는 궁합이었다. 수를 내야 했다.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다. 주변 지인을 만나기 시작했다. 월간 토마토 비전과 가치를 열심히 설파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 건물주도 응원해 주었다. 젊은 사람들의 용기와 추진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보증금과 월세를 깎아주었다.

바야흐로 <월간 토마토 대흥동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2008년 2월이었다. 한 달여 사무실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3월부터 새 사무실에 둥지를 틀었다.

대흥동은 월간 토마토에게 중요한 의미다. 월간 토마토가 새롭게 출발한 대흥동은 '반석'이란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다. 대흥동이 거대한 돌, 반석 위에 올라앉아 어지간히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

지만, 기가 맞으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던 월간 토마토에 살아갈 방법이 나타났다.

▲ 북카페 이데 내부 모습. ⓒ이용원

다른 사업에 눈 돌리고

대전 중구 대흥동이 지금은 원도심이라 불리는 몰락한 옛 도심이지만 여전히 문화예술인과 그 수용자에게는 알싸한 '추억'을 준다. 월간 토마토와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낡음이 주는 빈티지한 매력 때문이 아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태,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이 포인트다.

공간이 갖는 중요성과 이 코드는 밀접한 부분이 있다. 공간을 열었더니 사람이 들기 시작했다. 공간은 맞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초록동색이다. 그것이 힘이었다. 역시 일은 사람이 만들었다.

월간 토마토를 구성하는 인력은 사진과 글, 디자인 능력이 있었다. 이 능력을 활용해 일하기 시작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다. 일반적인 기획·디자인 회사가 하는 일이다. 외주 제작물을 맡았다는 이야기다. 소책자부터 포스터, 팸플릿, 사보까지. 당시에는 정말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월간 토마토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야 할 자금, 운영 자금 등이 모두 필요했다.

월간 토마토 제작 외에 다른 일을 조금씩 받으면서 매출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적지만 일정 보상을 지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일을 도모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내심 걱정스러웠다. 중심 줄기가 아니라 곁가지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그랬다. 자칫 영영 영양분 공급이 부실한 기본 줄기가 그대로 고사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당장 영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유혹이었다. 별다른 영업을 뛰지도 않는데 점점 일

이 늘었다.

전문 기획사가 아닌 잡지사에서 만들어내는 디자인 작업물이 주는 '파격'이 신선했던 모양이다. 경험은 미천했고 해야 하는 당위는 분명하니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과 단체에서 하나 둘 찾아왔다. 그중 많은 이들은 월간 토마토가 쓰러지지 않고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지지자였다. 죽기 십상인 나무에 열심히 물을 주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감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강력한 에너지였다.

▲ 북카페 이데 공연 모습. ⓒ이용원

북카페 이데와 M&A

지금도 많은 외주제작물을 맡아 진행한다. 본줄기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미 덫에 빠진 상황은 쉽게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들었다. 덫에 물린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주홍글씨'라는 영화 대사였던가, 세상의 모든 유혹은 달콤하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온갖 작업물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또 다른 '유혹'이 손짓했다. 북카페 이데다. 김운하 대표가 가게를 내 놓겠다며 월간 토마토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래, 사업 시작할 때 생각했던 우리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우리가 잡지만 만들 생각은 아니었잖아. '이데'라는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야.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독자가 와서 편히 쉬고 우리를 만나고.'

환상적이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깨달았다. 대흥동에 새 사무실을 구할 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내부사정은 문 닫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사무실 운영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모험이었다. 그

래도 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버티기보다는 공격적인 상황 돌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북카페 이데 인수건도 비슷한 틀에서 해석했다.

▲ 월간토마토 옥상에서 열린 옥상공연에 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이용원

서울 홍대앞 KT&G 상상마당도 떠올랐다. '대흥동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야. 대흥동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 찾아가는 건물. 다른 구조물을 위압적으로 누르는 거대한 공간이 아니면서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객기였을 수도 있다. 그래도 확실한 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로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월간 토마토에 중요한 가치였다.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읽을거리5. 여행이라는 삶속에서 내 꿈을 만나다>

제 1회 공정여행 수기공모전 장려상(청소년 부문)
대흥동 공정여행 참가자 정승훈

이번 여행은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근대 공간의 상상공작소' 라는 공감만세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정여행이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선생님이 공정여행을 가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아서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지금이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여행을 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과연 '공정여행' 이 여행이 어떠한 여행인지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으로 간단한 조사를 해보았다. "여행은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이라고 설명되어있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번 여행에서 이 말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얻어야겠다고 느꼈다.

여행을 가기 전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공정여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선 공감만세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었다. 그 곳 직원들은 20대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이었다. 기존여행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서 기존여행을 탈피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여행을 하는 세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수입의 90% 는 그 곳 여행지의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였고 최소한의 이익만을 가지고 나머지 이익들은 기부를 한다고 하였다. 공정여행이란 그 곳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집, 식당 등을 이용하여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여행지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면서 단순히 여행이 아닌 즐거운 힘듦이 있는 여행이라고 설명하였다. 설명 후에 오늘 가볼 곳들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지 여행을 패키지로 가서 수동적으로 하는 여행이 아닌 주도적으로 여행을 하여 스스로 느끼는 여행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공정여행이란? 나에겐 공정여행이란 처음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공정여행이나 기존의 여행이나 크게 다를 바 있겠느냐 싶었고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가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체험해보니 수많은 말들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공정여행은 단순히 소비적인 여행이 아닌 여행지의 사람들과 문화와 역사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된다. 그저 친구들과 즐기며 웃고 떠들고 아무 호텔이나 식당을 들어가는 여행이 아닌 그 곳 지역을 살리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즐거운 힘듦이 있는 여행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솔직히 이 대흥동을 돌아다니는 여행에 대해서 의심과 걱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흥동은 내가 자주 갔던 곳이기에 이 곳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알아갈 수 있고 새로울까 라는 걱정과 의심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여행, 그저 여행가이드에게 따라다니는 여행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여행이었다. 여행지를 가기 전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무엇을 중점으로 관람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대흥동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더불어 그들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됨으로 나는 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는가에 대한 회의와 자책을 하였다. 나는 내 나름대로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여행지에 대한 역사, 생활 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을까.

이 날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다. "여행은 삶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단순하게 즐기고 오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행이란 여행하는 사람의 삶과 여행지에 살고 있는 삶과 만남으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어 서로간의 존중과 조화를 이루는 여행이다. 대흥동 거리 곳곳에 작품들이 숨어있는지 작은 화단이 숨어있는지 나는 왜 알지 못하였나. 나는 18년 동안 대전에 살아왔는데도 대전에 대해서는 눈곱만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부터 앞으로의 나의 여행은 단순한 즐기는 여행이 아닌 즐기면서도 알아가는 게 있는 또한 힘들이 가득한 여행을 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여행자카페에서 들었던 '사라지는 것'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게 너무나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새로운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그러셨다. 정말 그렇다. 불과 몇 년 전에 대흥동에서 뾰족집이라는 독특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강제로 철거해버리고 아파트를 세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사라지는 것들은 각각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고작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에 그러한 이야기를 땅에 묻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그 곳에 뾰족집이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알지 못하였다.

앞으론 나는 좀 더 넓게 세상을 볼 것이고 큰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잊지 못할 여행이었고 가슴 아픈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은 나의 진로와도 관련이 있었다. 나의 꿈은 사계절 출판사의 편집자가 되는 것이다. 왜 하필 사계절 출판사냐고 물으신다면 그 출판사는 청소년문학이라는 새로운 글의 분야를 정착시키고 청소년들이 읽기 좋은 책들을 출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직업들을 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때는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을 하고 싶어서 작가가 되기를 원했고 우연찮게 사계절 출판사를 알게 되어 편집자가 되고 싶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편집자의 능력, 글 쓰는 사람의 능력에 관해서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본래 한 분야에만 치중되지 않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과 세상의 움직임을 보아야한다고 생각했고 난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만 여태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눈은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자하는 곳만 보는 내 눈을 나는 오늘 처음 발견하였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의 삶을 좀 더 포괄적이게 그러나 세부적인 것도 놓치지 않고 볼 것이다. 공정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나 역시도 언젠가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것이며 많고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편집을 해야 할 나인데 한 곳밖에 못 보는 사람이라면 그 책은 분명 좋은 책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을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